



2만불 시대

중소기업이 일어납니다



중소기업청  
브리핑

제27호 2004년 7월 16일 (금) 공보담당관실 TEL.042-481-4329~32 / FAX.042-472-3264

## 중기청, 9월부터 '창업대학원' 개설



유창무 중기청장과 박명수 중앙대 총장이 협약체결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올 가을학기부터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에 '창업대학원'이 개설된다.

유창무 중소기업청장과 박명수 중앙대 총장은 14일 오전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장실에서 창업대학원 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중기청은 지난 4월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응하는 창업전문가 양성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중앙대 등 5개 대학을 창업대학원 개설·운영 대학으로 선정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오는 9월 중앙대를 시작으로 내년 3월에는 호서대학교 등 4개 대학에 창업대학원이 개설된다.

창업대학원은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필요한 실무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대학당 30명 규모로 주간 2년, 야간 2년 6개월의 창업학석사과정이다.

창업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에 대하여는 자립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정부

에서 5년 동안 매년 4억~8억원을 지원하고, 창업대학원 학생들에 대하여는 등록금 지원, 기숙사 제공, 연간 2회 해외연수 기회 부여 등과 함께 졸업 후 창업 종잣돈(Seed Fund)도 제공할 계획이다.

▶ 창업벤처국  
소기업창업과  
(042-481-4411)

# 중기청, 민관 공동 일자리창출 펀드 결성

- 사우디 자본 포함, 334억원 신기술투자펀드 조성 -



정봉익 중진공 이사, 이기우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허범도 중기청 차장, 도용환 스택IT 대표(왼쪽부터)가 일자리 펀드 결성식을 가졌다.

최근 민생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소기업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신기술 투자펀드(일자리창출 펀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결성됐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300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펀드를 조성키로 하고 지난 4월 스택아이티투자(주) 및 (주)지식과창조 2개 조합을 펀드 운용사로 선정했으며, 이번에 스택아이티투자(주)가 조성하는 334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펀드가 13일 서울교육문화회

관에서 출범을 위한 결성식을 갖고 8월부터 투자를 시작한다.

이 펀드는 중기청(100억원), 스택아이티투자(주)(34억원), 한국교직원공제회(80억원) 등 민관자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회사 SEDCO(Saudi Economic Development Co.)(120억원)의 해외자본으로 결성됐으며, 이 펀드로 기술력과 성장성이 높은 IT관련 산업 및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함으로써 1억원당 10명씩 총 3천여명의 청년기술 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벤처펀드로서는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벤처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중동 산유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IT산업의 위상과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중동 산유국의 투자자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이슬람 및 한국 시장에 적합한 투자상품 개발과 마케팅 등 다양한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펀드의 투자방법에 대해서 스택아이티투자(주)는 기존에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1200억원 규모의 KGIF(Korea Global IT Fund)와 785억원 규모의 IT M&A펀드와 함께 “선택과 집중” 방식의 투자를 통해 성공시까지 최대한 지원을 하고, 해외 대형투자기관과 추가적인 공동투자 및 역할분담에 의한 지원을 확대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키워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창업벤처국  
벤처진흥과  
(042-481-4422)

# 중소기업전용 엔화표시 P-CBO 발행 신청 접수

- 7월중 참여기업 모집, 10월초 1540억원 규모 발행 -

중소기업청은 1540억원 규모의 엔화표시 프라이머리 회사채담보부유동화 증권(CBO)을 발행키로 하고 오는 14일부터 23일 까지 신청을 받는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올해 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전용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할 예정으로 우선 엔화표시 프라이머리 CBO에 대한 신청을 받아 10월초 발행할 예정이다.

발행되는 프라이머리 CBO는 중진공이 20%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하고 기업은행이 선순위채권을 지급 보증하며,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이 재보증함으로써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금리를 최소 0.3%포인트 이상 낮출 수 있게 됐다.

발행대상 기업은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신용등급이 'B-'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지원한도(40~70억원) 및 지원금리(5~8%)가 차등 적용된다.

참여기업은 3년 만기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일반회사채(SB)를 함께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게 되며, 만기 일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금은 차등 분할 상환(2차년도 말 30%, 만기시 70% 상환)토록 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은 후순위 채권에 대한 인수의무가 없으나 BW발행시 신주인수권(발행금액의 5%)의 50%를 대주주가 인수함으로써 경영권 위협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순위채

(발행금액의 3%)를 다소 높은 금리로 발행, 인수토록 하여 기업의 책임성 및 신용보강 구조를 강화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대신증권의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기업성장지원국  
금융지원과  
(042-481-4377)

# ‘벤처기업 1사1인 채용운동’ 일자리 창출에 한몫

- 상반기 178개사 840명 채용 -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 1사1인 채용운동’이 상당한 고용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인력채용 실적을 조사한 결과 178개 벤처기업에서 840명을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자중 신규사원은 489명으로 58%를 차지했고 경력사원은 351명이었으며, 특히 정규직은 837명으로 전체의 99.6%를 차지했다.

직급별로는 사원이 617명(73.5%)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급 79명(9.4%), 과장급 34명(4.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일부 벤처기업은 사업확장에 따라 지사장(1명), 상무(2명), 부장(8명)급 등 간부사원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 1사 1인 채용운동’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벤처기업협회 임원사가 주축이 돼 지난 4월 1일 협회에 본부를 설치하고 ‘벤처기업 전문 구인구직사이트(job.venturenet.or.kr)’를 구축해 1400여개 회원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중기청은 올해 채용목표 1000명을 달성하고 벤처기업의 동참을 확산시키기 위해 주기적인 인력채용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벤처코리아 2004’ 부대행사로 벤처기업 채용행사를 열 계획이다.

▶ **창업벤처국**  
**창업벤처정책과**  
**(042-481-4366)**

# 기술혁신형중소기업 통합정보망 구축

## - 기술혁신수준 자율진단체제 마련 -

중소기업청과 사단법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중소기업 스스로가 자사의 기술혁신 능력을 평가하고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간 사이버상의 기술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혁신형중소기업 통합정보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이 시스템은 2000년부터 구축·운영해 온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자가진단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것으로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2480여개에 이르는 기술혁신형중소기업간 자율적인 기술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게 위해 구축하게 됐다.

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이 시스템상에서 자사의 기술혁신능력, 사업화 능력

등 지표를 입력하면 자사의 기술혁신능력 점수와 함께 지정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분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지정된 기업의 재무상황 등 경영현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자문단인 '이노비즈서포터스 클럽'과 연계한 법률, 회계, 경영 등의 자문 서비스도 제공된다.

아울러 상시적인 사이버 박람회를 통해 기술혁신 결과물을 전시·판매토록 하는 한편 기술혁신 매거진을 통해 선진 기술동향 및 정보를 제공하고 사이버 기술거래의 장도 개설하여 기술혁신형중소기업간 활발한 기술거래도 이루어 질 수 있게 한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통합정보망의 구축과 함께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인력, 판로 등의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하여 2008년까지 1만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 기술지원국  
기술정책과  
(042-481-4449)

## 중기, 이전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청은 대학·연구소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 받아 실용화·제품화를 지원하는 2004년도 하반기 '이전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과제를 7월 12일부터 31일까지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접수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우수기술을 이전받아 상품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개발 비용을 총 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약 20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이전계약 체결 후 1년 미만의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로서 △ 지적재산권으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완료된 기술 △각종 학회지·논문·간행물 등에 수록 소개된 기술 △기타 소유권이 있는 기술로 보유기관과 계약 체결된 기술이며, 신청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및 과제평가를 실시하여 8월중 지원대상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양식 등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http://www.smba.go.kr))를 참고하면 된다.

▶ 기술지원국  
기술개발과  
(042-481-4447)

## 6월중 신설법인 19.5% 증가

- 중기청, 6월중 신설법인 동향 발표 -

지난달 신설법인 수가 전월과 작년 동월에 비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6월중 신설법인 수는 4330개로 전월(3622개)에 비해 19.5%, 작년 동월(4320개)에 비해 0.2%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설법인 수는 지난 1월 4069개, 2월 4386개, 3월 4677개 등으로 증가하다가 4월 4108개, 5월 3622개 등 4월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6월중 신설법인 수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982개로 전월(837개)에 비해 17.3% 증가했지만 작년 동월(1008개)에 비해서는 2.6% 감소했고,

서비스업은 2724개로 전월(2201개) 및 작년 동월(2544개)에 비해 각각 23.8%, 7.1% 증가했으며, 건설 및 설비업은 572개로 전월(532개)에 비해 7.5% 증가하였으나 작년 동월(738개)에 비해서는 22.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월에 비해 서울, 경기 등 대부분의 지역이 증가한 반면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전북(12.4%), 경북(12.1%), 제주(10.3%) 등의 지역은 증가, 전남(-23.2%), 강원(-20.0%), 울산(-16.1%) 등의 지역은 감소했다.

한편 신설법인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도법인 대비 신설법인의 비율은 전월(15.2)보다 상승한 18.6을 기록했다.

▶ 중소기업정책국  
정책평가과  
(02-5034-7932)